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호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2453호

발행인	이강혁
집행인	양승윤
편집인	이영필
외대신문사	(☎962-7128, 961-4151)
외대학보	(☎965-7088, 961-4153)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아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학신리	
인쇄인	김영로

제 540 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90년 5월 8일 (화요일)

반민자당 투쟁 본격화

민자창당 저지대회 관심 집중 5·18 6월로 이어지는 투쟁준비 필요

서울-용인캠퍼스의 현정권비전 투쟁이 지난 5월 1일(화) 베이데이 노동절집회 집회에 이어 어제(7일) 용인에서의 '침묵' 반민주 대항민자당 완전분쇄를 위한 애국대 투쟁의 날, 5월 투쟁선전과, 내일(9일) 양캠퍼스에서 동시에 열릴 「민자당 창당저지를 위한 애국의대 결의대회」로 파고나 높아갈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 창당시기에 맞춰 전국적인 중대투쟁에 들어간 이번주의 투쟁은 다음주 '5·18 광주민중항쟁 계승주간'에 최초로 단합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6월투쟁에

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양캠퍼스 총학생회와 대정전 투쟁은 현재 정부가 폭압적으로 자행하고있는 KES 및 현대중공업 노조파괴에 대한 투쟁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단합과 연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 내부파괴의 갈등·대립 등의 반민주적 보수대연합 분열상으로 인해 일반 학생들은 물론 국민에게까지도 호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 비해 아직 본교의 민자당반대 투쟁은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학생회 등 투쟁주체들의 효과적인 이후 투쟁준비가 시급히 요청되는 것도 이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5월을 본교의 반민주적 주요 투쟁의 달로 삼는다. 5·19일 서울-민자당 박살내기 캠페인대회, 용인-민자당 창당 저지대회 5·14-18일 5·18광주민중항쟁 계승 기념 주



▲지난 5월 1일(화) 서울캠퍼스 교문앞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대중에 대해 총학생회



▲후배 상용이 보십시오. 같은 과 선배라고 아직 얼굴도 모르고, 구속수 면회할 수 없는 선배가 막상 클리닉에 「후배에게」라는 말을 붙이려하니 속스러움부터 앞서는군요. 대학생활이라야 고작 한달 조금밖에 생활해보았을 상용이... 전직에 마비된바탕선에서 함께했다면 좋았을것을, 뒤늦게나마 이렇게 지면으로라도 상용이와 함께 우리

고 우리에게 돌아온 상용이... ▲아마도 지금은 서울구직소의 감방 한모퉁이에서 지난날 연 물었던 이 사회 자유의 크기를 가슴속으로 재이보고 있을 상용이. 상용이는 바로 예전 고등학교 윤리시간에 「자유는 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다는 명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상용이였을것을 이제 우리에게 문제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장악을 위해 세력으로 무장정찰이 투입되고, 82m 크기의 배관파괴에 쫓기며 죽음으로 근조자의 권익을 위협하는 현상. 전정환 사회장과의 파괴하는 누구이고, 또 철수와 밭을 내세워 기본적 자유권마저 억누르는 자는 누구인지 이제는 확실

해졌습니다. 아직은 본인에게 조여드는 자유의 그늘에서 몸을 밀고있을 상용이, 하지만 상용이와 우리, 이제는 환상이나 다름없는 거짓자유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더 많은이들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사회정치가 우리모두를 위해 바로잡히는 그날을 만들기까지 우리가 해야할일은 무엇인지 더 큰 눈으로 천천히 세상을 둘러보아야하지 않을까요?

(김창철)

상용이가 외친것은...

▲지난 4월19일, 맑은이리란 누구나 모스된 사회에 한바탕 피기들을 4·19의 그날에 상용이가 선배들과 친구들과 거리에서 외친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누구도 구두의결이나 말하지 않는 이 땅 거짓 정치인들과 음모의 외세를 향한 우리들의 정당한 분노가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정의로써 행동이 자유를 위협하는 권력의 파괴행위로 매도되고, 그리고 그들의 본성인 허위술수에 거짓진실주의로, 어쩌면 이 나라에서 가장 정의로써 젊은이의 호성이 될지도 모를 「구국자」의 이름을 달

고 우리에게 돌아온 상용이... ▲아마도 지금은 서울구직소의 감방 한모퉁이에서 지난날 연 물었던 이 사회 자유의 크기를 가슴속으로 재이보고 있을 상용이. 상용이는 바로 예전 고등학교 윤리시간에 「자유는 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다는 명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상용이였을것을 이제 우리에게 문제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장악을 위해 세력으로 무장정찰이 투입되고, 82m 크기의 배관파괴에 쫓기며 죽음으로 근조자의 권익을 위협하는 현상. 전정환 사회장과의 파괴하는 누구이고, 또 철수와 밭을 내세워 기본적 자유권마저 억누르는 자는 누구인지 이제는 확실

해졌습니다. 아직은 본인에게 조여드는 자유의 그늘에서 몸을 밀고있을 상용이, 하지만 상용이와 우리, 이제는 환상이나 다름없는 거짓자유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더 많은이들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사회정치가 우리모두를 위해 바로잡히는 그날을 만들기까지 우리가 해야할일은 무엇인지 더 큰 눈으로 천천히 세상을 둘러보아야하지 않을까요?

(김창철)

간 △19일:전대협 제4기 발족
△20일:반민주적 민자당분쇄를 위한 국민대회 △23일:미대사관 전입투쟁.

노학선봉대 4명
울산 현대중공업파견
지난 4월25일(수)부터 파견 중인 울산현대중공업현장에 전대협소속 노학선봉대로 본교로 4명(수)가 4월27일(금) 파견돼 5월12일(수)도 귀경하였다.

2(관원기)7명, 11명) 약 2백여명의 전대협노학선봉대는 현충노동자들과 결합, 현충알뜰한대 및 현대중전기 자유광장에서 투쟁하였고 숙식은 노동자의 집에서 하겠다고 한다.

노학선봉대의 한대원인 이소영(중앙·중국어)군은 「작년에 비해 노동자 가족은 물론 출신 시민의 호응이 굉장히 높았고 장함을 느꼈다」며 노학선의 투쟁이 앞으로 있을 5월투쟁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3명의 노학선봉대원은 다음과 같다. △정명진(상경·무역3총학생회노동분과장) △정윤준(중앙·아랍어3) △오신종(상경·경제2)



▲지난 4월19일(목) 용인캠퍼스에서 열린 「4·19 기념집회」 후 교문로 운동회기가 출현, 위험비행(飛行)을 하고있다. (주재영 기자)

서울 대동제 개막 5월투쟁 준비기간 돼야

앞으로의 5월투쟁과 9월(수) 민주자유당 창당을 시이 두고 기간설정할 때 많은 이견에 부딪히는 「서울캠퍼스 대동제」가 5월투쟁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월18일부터 4일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대동제에 대해 총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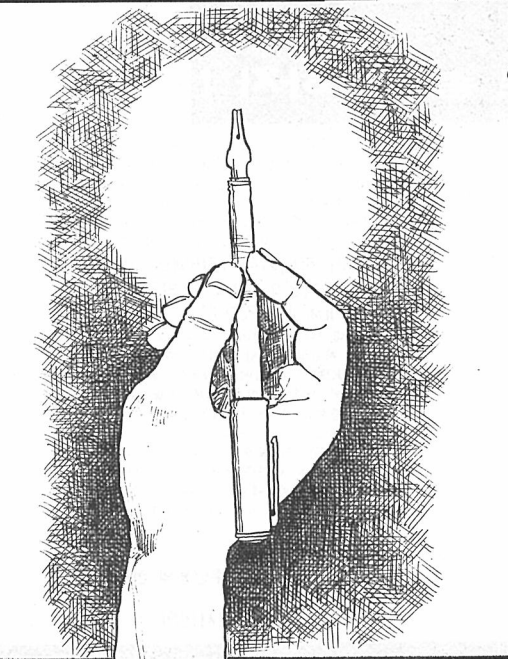
회와 기획부장 이현숙(경과·신)은 「8일 열릴날」장승제(오후3시)에 맞춰는 행사라는 차원에서 발표해야 할것이며 「현」사과와 관련 민자당반대 마라톤대회 내용상에는 행사의 준비로 대동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캠퍼스 대동제는 오는 5월28일(일)부터 6월1일(금)까지 5일간에 걸쳐 진행되며 서울캠퍼스 대동제 주요행

사실상은 다음과 같다. (8일 열릴날)장승제(오후3시)에 맞춰는 행사라는 차원에서 발표해야 할것이며 「현」사과와 관련 민자당반대 마라톤대회 내용상에는 행사의 준비로 대동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캠퍼스 대동제는 오는 5월28일(일)부터 6월1일(금)까지 5일간에 걸쳐 진행되며 서울캠퍼스 대동제 주요행

제8회 외대학술상 논문모집

본보는 올해에도 학술상 논문을 모집한다. 올바른 학술풍토의 정립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힘이 담긴 학술논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모분야: 본교 재학생 ○모집분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37개부(원고 80매 이내) ○심사위원: 상급: 주후 발표 ○제출처: 외대학보사(서울:학예서관 203호, 용인:학생회관 212호) 마감일: 7월31일(화) ※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외대학보



“부러질지언정 굽히지는 않겠다”

아직도 죽음의 의문이 밝혀지지 않은
대학헌론 이철규열사를 기억하십시오

대학헌론단원이 본국학원 문교부의 89년 5-6호에서 발표 이후, 일단 편집장과 필자의 구속, 조선대학교지정인 이철규열사의 의문의 죽음, 편집자권과 예산권을 둘러싼 대학헌론 무력화... 하지만 이러한 탄압을 겪으며 오히려 우리 대학헌론은 더욱 혼란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광고개제를 위한 광고정사회 운동, 학우들의 건전한 동참을 이끌어 낸 매체혁신사업... 이렇게 우리 대학헌론은 그 뿌리가 암시적 정의와 용기를 지닌 대학헌론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에 자리잡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대학헌론은 '부러질지언정 굽히지는 않겠다'는 각오로 지금의 탄압에 맞설것임을 학우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대학헌론 자주화 기간을 맞아 여러분과 이련일을 함께 하려 합니다

□5월5일 9시 경희대학교에서 문교부의 대학헌론 탄압 분석회 고 이철규열사 정신 계승을 위한 「대학헌론 자주화 기간」입니다.

□5월5일 9시 경희대학교에서 문교부의 대학헌론 탄압 분석회 고 이철규열사 정신 계승을 위한 「대학헌론 자주화 기간」입니다.

□5월5일 9시 경희대학교에서 문교부의 대학헌론 탄압 분석회 고 이철규열사 정신 계승을 위한 「대학헌론 자주화 기간」입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

사설

백척간두(百尺竿頭)의 6공, 이제는 어디로...

—파국맞은 민자당, 전국민의 단결로 분쇄하자

「총체적 난국」의 원인은 6공의 파행적 경제정책에 있어

지난 5월1일 정부와 민자당은 고위 당장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의 KES, 울산 현대제철사 사태 및 주부박복운동장 사·경제현황의 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고 당과 정부가 중점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서 「총체적 난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KES제철사, 울산현대제철사들의 불발(7)파업은 일련의 사회·경제질서의 혼란, 다시말해 산업평화의 위기를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주부에게 불발되어 광택이 아니라,라는 대담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현시국 「총체적 난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1백여일전 신진지 지배 구조의 안정적 재편과 장기집권을 위해 단행되었던 3당합당과 같은 역사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근의 파국적인 민력제, 치솟는 집값과 서울, 부산, 대구, 포항, 울산 등 5대 도시의 주택가격 폭락, 수도권 내외의 국·내외 부동산 가격 폭락, 그리고 이 모든 요인이 복합되어 이루어진 증권시장의 붕괴와 함께, 현재의 한국경제는 6공의 파행적 경제정책과 산업구조로 인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와 있다. 그리고 얼마전 정부에서 마련한 경제종합 대책과 대책은 무노동 무임금의 명분과, 노동시장 연결, 기업에 특혜조항을 현 경제위기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하여서 극복하겠다는 의도와 아울러 노동법, 안기법, 국가보안법 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정부파라 「신진평화」를 들먹이며 노동자를 사회화하는 주범인 장 주자적인 노동권 요구만으로 철저히 가로막혀 있다는 의도인 것이다.

노조파괴는 민자당 위기의 구조적 반발음

예초에 3당합당이라는 정치권에서의 수적우세를 확보한 민자당은 그 자신만이 정치권에서만이 아닌 바로 민중에 대한 것일 수 밖에 없고 결국 자신의 삶과 운명의 주인으로 남의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속성이라 할 때 노동자를 포함한 근로민중의 자주적 요구는 파국적 민자당의 정책에 맞서 분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민자당은 자신의 종전정당의 「총체적 난국」을 초래하고 나중에는 그 자신의 위기를 맞이하는 패배자를 만들 고 있는 것이다.

명문(名門)의 대의 허영·명문(明門)의 외대의 맹생

5공의 절정에서 대항쟁을 보기도, 알뜰한 군대에서 6.25를 맞았으며, 사회에서 민자당의 정치 루테타를 보아 왔다. 이 과정에서 85년 5월 5일 공문에서 테도까지 인하고 몸소 물리 시던 최(前)총장은 변질자 김영삼의 특별 부패문건이 되었고 명문(名門)을 되찾았다. 최(前)총장은 권력의 부패한 알뜰함을 가지고 6공에 합류해 이리저리 유입이 너무 많았다. 노동자들의 근사시간이 너무 많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을 것이 적금의 현실이다. 많은 것이 변했다. 최근의 상충구조가 부패된 양상으로 바뀌었다. 외대의 총장을 지내셨던분이 모두 다 변신(妙身)을 터득했다. 명문(名門)의 이름을 드높였다. 현대사를 돌이켜 보면 오늘날의 현실은 정경적이다. 그렇다 한다면 이러한 시국은 그러한 총장의 길을 정당한 인물들을 통해 배워진다면 사립학교가 출구는 한국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순진한 자신을 대우하

고나지 않을까? 순진은 무지 보나, 아름다움 것일까? 순진은 순수의 의미를 깨우치면 무엇이 더 의미 있는가? 우리의 형제·부도들에게 한 공의 정경·정경구조가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인가? 집과 학교의 율리우스를 벗어난 거리의 물결들을 보며, 농부의 저편 도둑과, 광부의 그림자나 부귀계 드로와 철학을 상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은 사라질 것이다. 집권적 폭력의 무서움을 하

명수장 明水塘



임영상 (사학과 교수)

이제야 한다는 반응에서 조금 전까지 사학의 정황을 의대인 여러모로 나누고 있다. 「의대 최초 입학제도」를 개편. 지난 4월 초 서울캠퍼스에서는 석대원 한수학이 의대인의 눈길을 끌었다. 파도처럼 구름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최초의 수석은 최호준이다. 이렇듯 다그치는 예외의 국공립 수석연구실을 사용하고 있는 독이파의 「오지」도사관, 이 시점에서 굳이 도사관이라고 칭한 이유가 궁금해서 찾아갔다.

지난해 학부학과 소계되었다. 영아파도사관 학생들의 파도처럼 도사관 형태라면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의 장사가 하와 교수의 주선으로 출판사로부터 기증받은

것이였다. 물론 우리 대학의 모든 학과는 비록 도서관의 형태는 아니나 하더라도 파도처럼 유교하고 있다. 84년에 창설된 사학과인 하리파도 5백평이 넘었다. 학부인 요한 것이어서 자주 눈에 띄고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으면 읽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도서관의 장서와도 중요하지만, 학과 또는 연구소 단위로 책이나 기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활동에 필요한 컴퓨터와 복사기 등을 구비하는 일이 「학문」을 위해서 마땅치 않은 일이라 할 것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학과내국의 예산을 통해 지원해야 하며 가까운 시일내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교수·학생 스스로 노력도 「학문」의 전통을 위해서 유익할 것이다. 용인캠퍼스 사학과의 경험을 소개한다.

출입장내의 유산인가? 가장행인이 고려되지

각과별 도서관을 활성화 하자

알고 성취적으로 주는 장학금이 교수의 입장에서 는 절망적이었다. 결국 성적장학금은 「대개 해설자보다 동료의 신수로 인한 선물」일 수도 있었다. 이리하여 전체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위해 장학금의 10%가 가비로 시작되었다. 신신허리의 폐기장에서는 새로운 학풍을 만드는 자부심으로 학생들은 교수의 제언에 호응을 주었다. 교수들도 자신의 저서나 역사, 그의 개인 도서를 파도사로 기증하였다. 특별히 정치학 전공 강준원 교수에서 기증한 12권짜리 「한국의 발전」은 학생들의 교과과목 중반에 아주 유익한 자료로 매년 활용되고 있다.

인캠퍼스 중국어학과 과정 3년제 언어학과

도 외국어교육 연구소를 이적성상을 보였다. 외국어교육은 여대까지 학생회로 사용되고 수석연구실 연구소를 교수와 학생의 기증으로 비추어진다. 이렇기부터 「공부방」으로 이름을 붙여 주었다. 신신허리의 폐기장에서는 새로운 학풍을 만드는 자부심으로 학생들은 교수의 제언에 호응을 주었다. 교수들도 자신의 저서나 역사, 그의 개인 도서를 파도사로 기증하였다. 특별히 정치학 전공 강준원 교수에서 기증한 12권짜리 「한국의 발전」은 학생들의 교과과목 중반에 아주 유익한 자료로 매년 활용되고 있다.

왕산 예현, 타학교 예현에 비해 조직 구성과

사업의 책임성 보장 필요

흔히 일반 예비 대학들은 사회진출의 문제와 교육의 단련된 기간을 통하여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국가기관 공무원 생활을 하려는 자부심이 강하다. 이런 예비 대학들은 일반 대학과 달리 역사와 사회의 주체로서 갖가지 세세하고, 졸업후에 어떤 사업장 속에서도 교수로서 근무를 하게 되는 자부심이 강하다. 이 때문에 예비 대학들은 사회진출을 목적으로 전국예비대학협의회(이하 전예협)대표로 연석회의를 지난 4월28, 29일만에 걸쳐 중남대에서 있었다. 해와 할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여 감당해 나가기에 고충비사를 타고 유상까지 3시간여의 자리를 가는 동안 복학 후 겪었던 갈등과 또 선배들의 강령안은 모두들에서 느꼈던 혼동을 통한 현실의 현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3시 30분경에 모여 진행된 인사, 주석, 주석사를 하고 12개 대학 63명이 모인 가운데 연석회의를 시작했다. 여러가지 주제에 대한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거치면서, 그렇게 모든 예비 대학들이 가진 학과, 학과를 뛰어넘는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고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학교의 모범사업에 힘을 보태며 대학의 우리 학교 예 협 활동과 예비역들의 유망성도가 비교되었었다. 전예협의 경우 파도장 추천으로 파도장으로 구성된 자치행정부에 예 협의의 관리에 운영되고 있고, 조선대학교에서는 고 이철규영장 전장규명 1.2차 실천행동을 전 행하면서 1천여명의 예비역 학생들이 군복을 입고 동향했다.

「출산의 소리」를 모읍시다.

이반주부터 5·18광주 민주화항쟁주간에 시작됩니다. 본보에서는 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고결한 혁명의 의지를 계승하고자 5·18과 관련된 글을 받고자 합니다.

(물론 기존 형태의 글도 좋습니다.)

◇원고주소: 2~7매

재현된 원고의 교료를 찾아가십시오.

5월투쟁의 불바람으로

반민자당 투쟁전선으로 총진군하자!

1. 5월투쟁의 불바람으로 친미파쇼 연합 민자당 독재 분쇄하자!

3당합당이후 미친 듯이 자행되던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에 맞서 범국민적 차원의 웅진전진기열되고 있다. 이제 5월투쟁의 광장에서 광주 학살의 주범인 미국과 민자당독재에 대한 파탄의 안거여야 한다. 연일 치솟는 물가폭등, 전세값이 폭등으로 내몰려야 하는 비참한 민중생존권의 현실, 제단의 사리사욕을 위해 학원의 자금을 자주 도둑질하는 폭력에 맞서 화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학우, 이 모든 것은 바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고, 조국의 분단을 철폐하는 자들의 험한 망상을 증거하는 것이며, 나는 자 하나까지 투쟁의 전선으로 내달려나가야 할 철학적임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전대기련 역시 민자당의 비도덕적 폭력과 장기집권책동에 맞서 반민자당투쟁전선에서 협차 투쟁해 나갈 것을 결연하게 선언한다.

2. 현대중공업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자행하는 노태우정권을 타도하자.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구속독자 석방」, 「합의 사항 성실이행」을 요구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대한 공권력 투입은 바로 그동안 노동자의 권

리와 요구를 군사작전이나 다름없는 폭력적압으로 일관해온 민자당독재의 본질이며,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도덕한 가진 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파쇼권력이라는 것을 자명한 것에 다름아니다. 모든 사회·경제·정치적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권력쟁탈에 눈이 먼 민자당독재가 바로 혼란의 주범이며 오욕의 역사로 뒤덮이는 자들임을 슬한 고백과 투쟁에서 우리는 물론 4천만 민중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3. KBS동지들의 「국민의 방송생취」, 「연민민주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KBS에 대한 노태우정권의 공권력투입은 파멸을 자초하는 반국민적 폭거이다.

KBS투쟁을 노사분규로 몰아부치며, 청와대변인으로서 5공비리를 미화한 동시에 서울신문사조를 왜곡시켰던 언론독재자 서기원의 KBS사장 임명은 헌정권의 민주적재정당 음모로 판명하여 드러낸 것이다. 민·노태우정권은 PD를물수사한, KBS수령자급사건 등을 확대해보도록하거나 사건에 홀림으로써 여론을 호도해왔다는 것은 이전에 알려진 바와 같이 언론계재정당 음모를 위한 사전포석이며, 치밀한 장기집권전략의 주요내용이다. 두차례의 경찰전담이 이어 KBS노사사

실체, 「비대위」간부수배라는 것은 바로 그동안 6월항쟁이후 민주연노조 건설투쟁으로 인해 지배통치기구의 주요수단인 신문과 방송에 대해자신들의 지배력이 약해지자 이에 위협을 느껴자행한 파렴치한 행위이며, 국민의 방송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작태임을 명확히 확인한다.

4. 우리 전대기련 1천5백여 기자동지들은 불퇴전의 각으로 반민자당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우리 전대기련은 언론의 민주화는 사회의 민주화를 제는 척도임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서기원 퇴진투쟁, KBS사수투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방송, 국민의 입과 귀를 대신하는 충복을 지향하는 「연민민주투쟁」에 적극 연대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민중들의 최소한의 권리와 요구마저 짓밟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반민주·반통일세력인 민자당독재를 완전히 몰아낸 때까지, 전투적인 언론전사로서 자기혁명을 다할 것을 분명히 한다.

통일위원 46년 5월5일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전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동의대 5·3항쟁

오욕과 누명으로 점철된 1년





부활하는 언론통폐합 음모

6공의 언론탄압사례

- ▲1989년
- 6.22-KBS노조 「이월규특검」전국 방영을 관할키로함. 경영진들이 「국정조사위원회 조사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방영거부.
- 7.12-안기부, 「한겨레 신문사 납입 민형, 새벽에 국가안전기획부는 영도경찰서 소속 전경 135명여명의 방벽을 동원, 문헌, 편람을 폭력적으로 파괴하고 물품을 약탈함.
- 8.3-장부-안기부, 북한정보 입방장장하포, 서경원회의와 입수경리보 방북사건등에 무조건 취재 방해정조침한 장부사건은 신변 2차지표로 언론사에 제공, 또한 분공부 6월의 보도취취 「북한외교관에게 대한 보도금지」배로
- 8.17-문화체육부, 언론노조를 미용특정기간동안에 경찰에 고발, 발령인 권영원위원장 불구속키소
- 9.1-MBC노조, 편성 보도국장직제제정, 사용자측의 공권력위반 요청등 강제대응으로 결함.
- 9.8-MBC노조 편성, 편집국위원장 요구를 사용자측이 거부함으로써 무기한 파업입력, 문공부가 KES에 대해 5-6일 장기보안감사를 실시하러왔으나 무산
- 9.12-MBC파업 11일만에, 경찰방화 관련조항에 대해 편성국장, 보도국장, TV기술국장 등 해당부서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여 임명한다.는 타결 조항 경위
- 9.23-편집국위원을 위한 교섭절차, 서울신문 전면파업입력
- 10.19-서울신문 단교합의타결
- 10.26-서울신문 노조 부위원장 김용원씨 2개월 정적처분조치, 수습기간 파업에 참여 한 사원2명을 임용에서 배제 하는데 사용자측의 제반인사에 대해 제정신로
- 11.2-가관원 언론사들 공의회, 언론사내 국군보안사령부, 안기부, 치안본부 등 기 관소속 요원들의 출입금지, 이는 언론노조의 공적보도 활동에 대한 위법감각과 공안정국으로 경찰의 사회분리정책을 따라 언론사들을 하는것으로 알려짐, MBC의 60년제교섭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의 입찰에대한 타결 단교합의이 진척을 취함, 창간보도의 대한노조는 노조와 노조 각 언론사에 기사를 배급하는 사단법인 내외방송에 대한 비판은 논쟁, 이는 경영이인 인사는 물론 불행하나 개기도 안간가세, 의해 부재중이고 있기때문에 북한 관련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있음으로 기인.
- 11.16-장부, 방정국장과 유교 노조, 문공부는 노조의 공적활동등으로 방송통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방송제도 연구위원회(방제위)를 활용하여 상정방송 도입을 통한 방송통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이 밝혀짐.
- 12.13-경향신문 편집국, 간부회의에서 기자 5인 자진퇴사 강요(취사실용과 경영악화 등이 이유)
- 12.14-한겨레신문 유해공작 안기부 언론보안감사, 전 중대대 총학생회장 이태형씨의 의문과 추후와 관련한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문제삼아 안기부, 도연주씨가 한겨레 신문을 인신인식 형식고발 하였음, (이것은 이태형씨의 죽음에 관련한 세간의 여론을 잠재우고 한겨레신문을 유해화하는 안기부의 언론보안 책동의 일환이라 볼 수 있음)
- 12.23-자신사기적자하하 인사위원회에서 정제 해임 형식으로 강제해직
- 12.27-경향신문 「과내세력」을 배척한다는 언론노조조업입력을 일방적으로 탈퇴(장부, 제발들의 외부세력이 아닌 후원세력으로 규정)
- ▲1990년
- 2.1-KBS 89년 방송수준 미저급분리판별된 기사.
- 2.7-경향신문 45일째, 해임처분 무효화인 소송」민주경제통행 부평위원회의 참여 농성이 계속됨, 출근 부정이 36일째.
- 4.12-KBS에 방송사상 첫 공권력 투입, KBS직원 1명17명 인형, 즉각 제재처부에 들림.
- 4.30-KBS에 3천여명의 경찰 동원 2차 공권력 투입, 3명33명 부위기 인형, 30여명 구속경정발부.
- 5.4-MBC에 공권력 투입으로 도피중이던 KBS노조 간부 인형
- 5.8-파업 27일째, 파업의 장기화

오늘(8일)로써 파업 27 일째를 맞고 있는 KBS는 정부의 두차례에 걸친 공권력투입등의 강제대응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현재 수배중인 KES비상대책위원회의(이하 비대위)내 핵심 임원형세를 만나 현재 KBS의 파업진행경도와 KES파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이글이 독자들과 KES파업에 대한 올바른 관점정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



대담자: 임민형 (KBS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정성영 (본보 사회부장)

‘앞으로 절대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방송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KES파업이 한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파업이 대두되고 있는데 사원들이 사서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서는 3공시절 국무총리 공보비서관과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하였고 5공때도 서울신문 사 사장등을 역임했다는 전력이 말해 주듯이 권력아부형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KES파업은 사서의 임명이 정치적으로 장부가 KES를 흡수시켜 민영화함으로써 방송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조작하려는 계획이 시작되어 이것을 처음에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욱 힘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비롯된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KES의 파업은 정부의 방송통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었지요.

—방송사의 민영화를 말하셨는데 정부와 민영화의 통해 제발들에게 방송사를 넘기려는 의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방송을 제발들의 손으로 넘겨주면서 정부는 그간 다져온 정경유착을 통해 27기 정도의 개혁을 세우고 있었음으로 생각됩니다. 그 하나는 앞으로 다가를 충전이나 저저

전에서 방송을 저절스럽게 자신들의 홍보매체로 전용하려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외국방송이 몰입듯이 들어오고 있는 지금, 앞으로 침투해들어 미국 자본들의 광고수요가 3기의 제1로는 부족하기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국민의 의식수준도도 정교 없이도 엄청난 만과 광고까지 하게된 단 그 수요는 한 폭으로 늘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잠정 더 낮추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파업에 대한 사원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사원들은 부장급이상의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간부중에도 몇몇은 식적으로는 동조를 하면서도 나이나 직책 등으로 인해 직접동참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업을 하는 도중 장부가 2차체력이나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탄압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탄압 정도는 어떻습니까.

—정경이 심합니다. 2차례의 공권력투입은 눈에 보이는 것

이고, 이것으로 오히려 사원들의 결속을 다질 수도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원들에 대한 이간책동을 물리적 대응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사원들 개개인에게 승진등을 빌미로 회유하거나 해임등을 운운하며 협박을 하면 사원들은 혼란하게 되고 이것은 사원

들의 분산분조를 낳게 합니다.

▲KES가 방송사이니 만큼 규약을 했음에도 국민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실감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 무리도 국민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 온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1백통 정도의 전화가 옵니다. 처음에는 그 내용의 50%정도가 격려 전화였는데 요사이에는 90%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국민들도 우리들만큼이나 방송민주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요. 그리고 항의의 전화 하시는 분들을 보면 50대를 넘어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즉 65층을 실제로 뛰오신 사례들이지요.

—파업을 하시다 보람을 느꼈는 게 없었습니까.

—정말 많았습니다. 제비만은 신념으로 사는 어느 부부가 담을 2백여인분 물었다. 거기서 「이거 드시고 힘내서 끝까지 싸우세요」라고 격려해 주신 경우도 있었고 지방에서 차를 대절해서 떡을 만들어 가져온 신 분들을 계시고 정말 아무

KBS, 오늘에 이르기까지

- ▲90. 2.6-김사헌, KBS 89년 방정 수당 미저급분리판별.
- ▲2.16-자 일간지, 김사헌과 중 1여명의 차를 40여명으로도 확대 왜곡보도
- ▲3.2-「KES지주주호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구성, 참여농성돌입
- ▲3.8-서영훈사장을 사표수리 발표
- ▲3.19-비대위 「정권의 총언이 또다시 KES사장이 되게 할 수 있는」성명발표
- ▲4.3-이사회에서 사장직권 재창조로 결정.
- ▲4.4-서기원 취임자후 전신인 사명직업시작, 「KES 자주관행 전사원회의대회(민주광장:5백여명 참석)」
- ▲4.7-위원장 사발식(민주광장 7백여명참석)판제사장 출근지정된 발대식, MBC노조 지지성명 발표
- ▲4.9-장부, 「KES사장에 서기원씨 임명」발표, 서기원씨는 밤 9시30분에 조합사무실을 갑자기 방문 「협조를 호소」
- ▲4.10-판제사장 출근지정 전직 사원회의 대회 및 조합원 총회
- ▲4.11-서기원씨 첫 출근 시도 도중 6백여명의 거센반발로 철수, 이에 사내방송을 통해 「공권력투입」경고.
- ▲4.12-10:30 서기원씨 근무사원 및 청원경찰의 호위하에 출근, 사서를 물리쳐내는 노조원들을 경찰 5백여명 투입으로 강제해산시작, 1명17명인형.
- 21:14 KBS 9시뉴스 중단
- ▲4.13-전국비상사신 총회(민주광장:3천여명 참석)
- ▲4.14-서기원사장 간부회의에서 「전파기능이 마비되는 한이 있어도 사장을 교체하겠다」고 밝혀 강제대응방침 시사.
- ▲4.17-KES 실-국정당, 사원들의 민주투쟁 의지에 대한 지지성명발표, 한문시KES 이사 양심선언.
- ▲4.19-방송민주화경위, 4-19기념 단국마라톤(전신인 참가). 국립공립원 KES사태에 대해 논의(강성태, 김진관등 여당의원까지 서기원, 최명철 피진구?)
- ▲4.28-비대위대표 김용갑 전 총무처장관과의 면담부 「선정성과 후퇴비내용의」4.30 장상발, 발표
- ▲4.30-「선정성과 후퇴비내용」부름 들은 사원총회에서 투표(반대 2천4백여표대 찬성 1320여표로 1천여표차로 부름)
- 23:00 2차 공권력 투입(3천여명의 경찰투입) -3명33명 인형(30여명 구속경정발부)
- ▲5.1-언론노동조합원회 비상총창(자사 노조위원장단)신문제작 거부-사기-방법은 13개사 공동대책위원회에 입원
- ▲5.3-KES사원총창, 1천여명의 전경의 자치로 벌어진 야동, 발판공개를 구 탄압(2천여명참가)
- ▲5.4-10:00 농성공 파로 쓰러진 고 김재석 열경시 거행, 23:40 MBC에 공권력 투입으로 도피중이던 KBS노조간부 전일명 조직국장 인형.



과소비를 추방합시다

생활에 풍요를, 마음에 풍요를

큰 내일을 여는 작은 일들, 두산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두산그룹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산그룹은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문화, 환경 분야에서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문화, 환경 분야에서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두산그룹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산그룹은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문화, 환경 분야에서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문화, 환경 분야에서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